

# 충북 보은군, 행정홍보 현수막 불법인줄 몰랐나?

## 행정홍보라는 가림막 뒤에는 불법

충북 보은군(군수 최재형)이 행정홍보 현수막을 내걸면서 많은 현수막이 불법인 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행정력의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있다.

실제로 CTN신문사 취재진은 보은군 각 부서에서 내걸고 있는 문제의 행정홍보 현수막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보은군의 각 부서는 홍보 현수막을 발주하면서 위치를 지정해 주고 있지만,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문제는 광고업자들이 군이 지정한 현수막 부착장소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주, 영업상 이익을 위해 합구하며, 행정홍보 현수막이라는 해석으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광고업자들이 입을 막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발주처인 보은군이 불법인지, 합법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 지난 5월 '2024 속리산축제를 위한 '술향미가' 향토음식거리 홍보 현수막 (속리산 새내리) /사진제공 보은군

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옥외광고물등 관련법을 한 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도 눈을 감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설치 광

고물 관련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도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표지금·지체한을 적용받는다라고 표기돼 있다.

또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부지 밖 설치의 경우 현수막제시대, 벽보판 및 게시광고물로 지정돼있다.

하지만 보은군의 각 부서는 해마다 주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행정홍보라는 잘못된 해석 아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과 자연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노출돼 있다.

특히 도로 횡단 현수막은 안전사고 위험이 커 행정력으로 지도 단속해야 할 상황인데도 지도단속 기관인 보은군이 앞장서 설치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은군 관계자는 군에서 곳곳에 부착한 행정홍보 현수막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하고 이제부터라도 지정계시대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라고 상하반기별로 옥외광고물법등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에게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거기 기자



▲ 아산페이 카드, 모바일 아산페이

## 아산시, 설 명절 맞아 70억 원 규모 아산페이 추가 발행

### 고물가 고금리 속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 기대

아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70억 원 규모의 모바일 아산페이를 추가 발행한다.

이번 추가 발행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1월 초 발행된 모바일 아산페이는 170억 원이었으며, 5일 만에 모두 소진되어 판매 마감하였으나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70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20일부터 31일까지 판매될 예정이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최대 50만 원, 보유 한도 1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미 구매 한도를 모두 채운 사

용자는 추가 구매가 불가능하지만 1월에 구매하지 못한 사용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아산페이 추가 발행이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산시민 모두 적극적인 아산페이 이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페이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효과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판매 예정인 모바일 아산페이는 구매 시 10% 할인이 적용되며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조성희 기자

## 세계경제 중심서 '충남경제 새희망' 쫓다

### 김태홍 지사 미국 출장 마무리...연초부터 대규모 외자유치 희소식 해외시장 개척 전진기지 문 열고 재외동포 도내 유치 발판 마련도



민선8기 힘센충남이 새해 벽두부터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충남 경제에 대한 새 희망을 밝혔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정치·경제적 격변기 속에서도 대규모 외자유치에 성공하고, 해외시장 개척 전진기지 가동을 본격 시작했으며, 재외동포 도내 유치와 베이벨리 '업그레йд' 발판도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김태홍 지사는 6박 8일 동안의 미국 출장 일정을 마무리하고 15일 귀국했다.

이번 출장 가장 큰 성과로는 글로벌 기업인 코닝정밀소재와의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이 꼽힌다.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라스베이거스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5' 행사장에서 맺은 MOU는 코닝정밀소재가 아산에 첨단소재 차세대 공정기술 도입을 위해 설비를 고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은 트럼프 2기 출범과 계엄·탄핵 정국 등 국내외 상황에 따라 외투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를 멈춰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글로벌 기업이 과감하게 충남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도는 코닝의 이번 투자 결정이 다른 외

투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올해 외자유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 협약 후 CES 2025를 참관하고, 11~12일에는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구글 본사 등을 시찰했다.

이를 통해 세계 경제의 미래와 미국의 혁신 기술, 선진 정책·제도 등을 살펴보고, 도내 접촉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CES에서는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모빌리티·스마트홈·디지털 헬스 등 혁신기술이 대거 공개되며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CES 2025에서는 또 총 도내 24개 기업

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관도 운영했는데, 수출 상담 365건 5718만 달러, 수출 협약(MOU) 또는 협업 제안 17건 280만 달러의 성과를 올리며 앞으로의 기대감을 높였다.

대미 수출 확대와 외자유치, 문화·관광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진기지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13일 미국 콘래드로스엔젤레스호텔에서 충청남도 미국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태홍 지사를 비롯한 충남 미국순방단 외에도, 에반 리드 캘리포니아주 국제업무 고문, 도안 리우 LA시 최고관광책임, 프레드 정 플러턴시장, 조이스 안 부에나파르키시장, 김영환 주 LA 대한민국 총영사, 이은주 라구나우즈 시의원, 폴 최 충청향우회장, 윌리엄 파올레스 세계무역센터 상임이사, 교포 기업인 등 현지 인사 200여 명이 참석, 미국사무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미국사무소는 앞으로 미국국 수출 120억 달러 시대 개막 미국을 충남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로 견인, 미국과의 다방면 교류를 통한 충남 세계화 견인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번 출장에서 또 재외동포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겠다는 뜻을 안팎에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지난 13일(현지시각) 콘래드로스엔젤레스호텔에서 캐빈백 미국 레드포인트그룹 CEO, 이용록 흥성군수, 최재구 예산군수와 지역 활성화 융복합 프로젝트(재외동포 유치) 추진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우호 기자

## 영동군, 학부모 부담을 덜어 줄 '급식비'

### 초등 돌봄교실 급식비...겨울방학기간영동초이수초 지원

충북 영동군이 2025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급식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영동군 관내 초등학교 14곳에서는 방학 중 돌봄교실 급식이 수억여 부담 원치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매식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특히 최장 5주에 달하는 여름방학 동안 급식비 부담이 큰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동군은 2025년 1월 겨울방학부터 영동초와 이수초를 시작으로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로써 매식을 선택한 학부모들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아이들이 균형 잡힌 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돌봄교실 급식비 지원은 '2025년 영동군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하나로, 군은 올해 △지역연계 육성 우수체육선수지원 △학교체육 내실화 등 총 8억 2,000여만원을 투입해 교육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거기 기자



이 중 돌봄교실 급식비 지원사업에는 5,200여만원이 배정됐으며, 이번 겨울방학기간 중 영동초와 이수초에 1,500만 원을 지원한다.

3월부터는 3,700여만원을 투입해 관내 7개 초등학교로 지원을 확대한다.

영동군은 2024년 행정안전부 '늘봄학교 협력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돌봄 환경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돌봄교실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들의 큰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지원이 확대된다면 영동군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기 기자

HAPPY NEW YEAR  
**20%**  
1만원 이상 구매시 최대 5만원

HAPPY NEW YEAR  
**30%**  
10만원 이상 구매시 최대 7만원

할인쿠폰 선착순 지급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검색창에 서산드레를 검색해보세요

서산드레는 농특산물 소싱을 해주는 서산! 서산드레! 서산을 대표하는 9종류의 서산드레를 만나보세요

규격별 상품 | 서산편두 | BEST 상품

## 서산드레물 2025 설맞이 선물할인전

2025. 1. 13.(월) ~ 2025. 1. 30.(목)

100% 믿음과 신뢰로 드리는 서산드레는 서산시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 마크입니다.

해뜨는 서산